44~53특집-12 1904.5.9 4:48 AM 페이지52



# 대형화와 신용등급 관리 그리고 재무 안정성 건전화

## - 협력업체가안정적인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IMF 관리체제졸업이후지난2 3년간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더불어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영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건설업체 수도 급증하였다. 이처럼국민경제적파급효과가제조업보다 큰 건설업의 활황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정부의주택 · 부동산규제강화, 자재비용및유가의상승등으로인한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건설 경기의 침체로 건설업계에는 다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국 · 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원가절감과생산성향상노력없이는 생존을위협받는상황에직면하게됐다.

### 협력업체의중요성

건설공사는작업의복잡성, 다양성, 특이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즉, 건설 공사는 수백개의작업으로구성되어있고, 여러가지 작업에는 선 · 후의 순서가 필요하므로 복잡하며, 동일한내용의공사가거의없어 각각의 공사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며새롭고다른경험을하게된다. 또한, 건설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가 많고, 예상할수없는많은요인에의한영향을받고있다. 공사감리자, 기능공, 재료납품업자, 협력업체등이각각다르며현장에서의 토질, 일기, 교통, 용수, 동력, 노무조건등 이각각다르다. 따라서이러한공사의특이성은 건설 공사만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이라할수있다. 최근건설공사의하도급비중 증가와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가중되는 원가 경쟁에 대한 압박은 협력업체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협력업체 관리가 향후 건설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최근화두로대두되고있는건설생산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하도급관리체계의점검과더불어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하도급관리체계수립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체간에 외주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정보 교류와 연대협력을도모하기위해' 건설사외주담당자협의회(건외협)가이달초출범하였다. 건외협의 출범은 협력업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각인하게되는시발점이될것으로보인다.

### 협력업체의 자기 관리선행조건

' 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 라는논쟁거리가될수도있겠지만, 협력업체의대형화, 신용등급, 재무안정성등은특정협력업체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선행조건이라하겠다.

먼저, 대형화에대해살펴보자. 건설업이 지탄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수있다. 그중하나가하도급관련문제이다. 건설공사가하도급생산으로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부실 전문건설업체의난립과이에따른부실시공은원도급업체인일반건설업체가협력업체관리에있어서체계성이부족하고, 이를수행해본경험이부족한데서오는 경우가많다. 이에 따라최근에는대부분의일반건설업체들이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자사의 규모에 맞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협력업체만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요건을갖춘업체로보는경향이늘고있다. 즉, 일반건설업체의지원을통한성장은 먼저해당업체가일반건설업체가요구하는 등록요건을만족시킬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일반건설업체의 지원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온실 속에서 성장한 협력업체는 장기적으로 무한 경쟁 체제에서쉽게상처받을수있는구조를가지

**최저가 낙찰 공사의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 추이**

(단위: 건, %)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전체 |
|---|---|---|---|---|---|
| 40 50% 미만 | - | - | 1 | 4 | 5 |
| 50 60% 미만 | 6 | 10 | 16 | 22 | 54 |
| 60 70% 미만 | 35 | 20 | 1 | 7 | 63 |
| 70 75% 미만 | 6 | 1 | 1 | 1 | 9 |
| 75% 이상 | - | 2 | 5 | 4 | 11 |
| 건수 | 47 | 33 | 24 | 38 | 142 |
| 평균낙찰률 | 65.8 | 63.0 | 60.1 | 59.1 | 62.4 |

주: 입찰일기준임.

44~53특집-12 1904.5.9 4:48 AM 페이지53



고있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일반건설업체와의 수직적 관계에서나아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규모의 실적 과외형이필요하다.

또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가고민하는부분이신용등급에따른경영의 어려움이다. 일반건설업은 신용도에 따라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회사채발행 시금리부담등에있어추가적인부담을갖는다. 이는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업체에 대해 더욱 가중되는 이중 부담이라 하겠는데, 협력업체의신용문제는여기서그치지 않고한걸음더나아가생존의문제로부각된다. 2001년부터 건설업계에 본격적인 신용등급에따른협력업체관리시스템이도입됨으로써 많은 업체들의 거래 관행에 일대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다. 단적인예로 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신용 등급 B등급 이하의 업체는 그동안의 공로를 감안한다해도 상당수가 거래 관계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물론, 협력업체와의거래관계가 어떤 한 지표만을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지만, 결국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업체는 거래 관계에 있어‘ ? ’를가질 수밖에 없기에 신용등급의자기관리는지속적인협력관계를위한최소한의조건이라하겠다.

한편, 신용등급과맞물려자료에의해협력업체를평가할수있는유일한기준은재무제표를이용한해당업체의재무안정성이다. 현재정부의고강도투기억제정책은많은 건설사의 일감 부족으로 이어져 심각한 수주난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런상황에서 자본력이부족하고부채가많은전문건설업체는일반건설업체에비해더욱취약한환경에처할수밖에없고, 상황이어려울수록일반건설업체들은 공사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판단하는중요한기준으로재무안정성을보는경향이있어, 이를건전화하는것은협력업체의중요한자기관리라하겠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다수 전문건설업체의 재무제표가 현실적으로향후기업의안정성을판단하는 지표로확신하기엔부족하다는전문평가기관의의견을종합해볼때, 이를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이와 더불어 업체 대표자의 재무적 자질까지 도고려하고자하는것이일반건설업체들의 현재진행형과제이다.

## 상생으로 가는길

지금까지원도급자인일반건설업체와협력업체의관계는상호의존적관계라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협업 관계로서만 존재하였다. 이제 그 원인을 협력업체의 자질 부족, 실적부족, 안정성부족이라고일방적으로얘기하기보다는일반건설업체도자사의 관리역량에대해반성하는한편, 일반건설업체와 협력업체 모두 상호 관계의 문제점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상생의길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일반건설업체가추구하고자하는외주관리 방향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해협력업체가노력해야할자기관리포인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일반건설업체의 외주 운영 방향

①협력업체 수 :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발주 규모를 분할하여, 건당 4 8개 업체의경쟁이가능한규모로산정해등록업체별로최소한의일감이수주될수 있는비율이되도록조정

②협력업체 전문화 : 일반 공종 업체와 특수공종전문화로업체관리에대한세부자료를축적하고, 전문공종관리를통해 상황별 · 여건별로협력업체투입과대응이가능한체계구축

③협력업체정예화: 무분별한업체등록의 폐해로인한저질업체의양산과부실시공의책임전가등의방지를위해공종별 정예화목표설정과추진계획수립

④객관적평가: 재무, 기술, 현장, 안전, 품질부분의평가방법다양화와항목별가중, 기여도별이해가가능한객관적결과도출을통해협력업체의신상필벌일반화

⑤우수 협력업체 지원 : 우수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발주 기회 확대, 교육 기회 부여, 대금지급인센티브제, 공동협력체 계상시화로제재위주의관리에서수평적협력관계로의대승적발전추구

### 협력업체의 자기 관리 포인트

①거래 업체 관리 :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등록을무분별하게확대하기보다는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핵심 역량 강화 가능한주요업체로거래업체수를조정할필요가있음.

②시공 전문화 추구 : 무리한 신규 공종에 대한진출은관리능력부족으로인한부실, 적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큼. 따라서, 핵심공종과연관공종에서의전문화를추구하고, 착공전사전 기술협의로문제사항스크린능력까지 겸비해야함.

③신용등급 관리 : 신용평가 기관을 통한 업체등급관리가일반화됨에따라부채비율, 성장성등에있어불필요한하락요인제거와신용등급향상방안강구필요

④재무건전성유지: 어음기간과다, 대금미불에따른현장근로자 · 자재업자 · 장비업자와의 불필요한 갈등 예방 차원에서수익내선별수주를위주로하며, 과도한차입재무정책의지양필요

⑤대표자: 대표자의개인신용도에따라금융기관, 자재 · 장비 업자와 원활한 신뢰유지가가능하므로 신용도유지를위한 대표자개인의신용등급 관리도향후계열화를발전시킬수있는요인이됨.

**임창식** 풍림산업(주) 외주공무팀과장
**이택기** 롯데건설(주) 자재팀과장